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 피감기관 :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대전마케팅공사
-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구체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앞으로 노력, 검토, 수렴하겠다 등 여부만 물어 보는 질의가 많았다. 대전시의 인력활용과 감사수준에 대한 의욕들이 많이 보였다.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처리하고 있는지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자리를 잠시 비우는 의원도 있었지만 방해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오후 질의의 경우에는 작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매년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으나 큰 틀에서 사무감사를 준비한 자세는 되어 있었다. 타 시도 지자체와의 비교를 많이 들었으며, 대전 자체의 집중하기 보다는 경쟁으로서의 우위 부분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갔다.

2)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 피감기관 :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문제사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으나, 실질적 개선 유도하는 질의가 아닌 원론적인 내용으로 피감기관 질타하는 형태의 질의가 많다. 질의나 요구가 막연하다. 훈계 또는 어르기식의 질의가 대부분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사업 확인,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청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출 받는 자료들을 미리 확인하고 미비한 점들을 준비하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이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 전체가 준비가 부족했다.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한빛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 대체적으로 현재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질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책 대출을 택배망을 통해서 일자리 구축을 동시하겠다는 방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특정 의원은 조사와 현 문제와는 떨어진 문제를 질의하는 모습은 좋지 않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확실해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의원 중 몇은 현장방문으로 통해 문제를 확실히 직시하고 질의하는 모습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6일(월) 10:00 ~ 15:46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대전마케팅공사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대전마케팅공사

주요 안건

① 인사혁신담당관

1-1) 신규채용공무원들의 본청 발령

-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자치구에서 일을 배우고 본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여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지 에 대한 질의
-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1-2) 장애인, 고졸, 저소득층 채용 관련

- 수험 번호를 통해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데 신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안 마련 지적
- 사회적 배려 계층을 채용시 보조인력과 기계의 활용이 가능하여 예산 반영 추진 요청

② 감사위원회

2-1) 청렴도와 특별감사에 대한 질의

- 감사위원회 출범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타 시도와 비교 등급 확인

2-2) 청렴도 순위 상승에 관한 노력 여부와 성과 감사 실적에 대한 질의

- 현재 실적에 대한 감사는 바쁘고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고 이에 대

해 재차 감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질타

2- 3)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질의

- 운영주체가 대전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다는데 지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감사가 어렵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고 감사가 가능하다고 답변.

2-4) 대전시 산하기관 지적사항

-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적사항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

③ 대전마케팅공사

3-1) 잡다한 사업이 많아 보인다는 질의에 크게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사업을 진행중이며 설립 취지에 벗어난 업무는 없다고 답변.

3-2) 대전마케팅공사는 타 시도에 비해 인원에 따른 고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직 대 조직으로 비교 했을 때 인원차이는 없지만 내용을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 답함.

3-3) 의료관광에 관한 질의

- 대전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안내해주는 병원 안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의료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초청한 뒤 참여할 병원을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안내 병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답함.

3-4) 와인페스티벌 관련 질의

- 매년 예산이 줄고 있는데 아쉬움을 표하며 대전의 행사로 더 키워서 대전만의 관광 상품으로 키워야 한다고 당부

3-5) 대전마케팅공사 금년 들어 지적사항이 급증한 이유 관련 질의

- 출장 여비 감사 수당 등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질타
- 3년만의 종합감사로 인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당 내용이 상세하지 않은 점을 지적.

3-6)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련 질의

- 보유 주차장 면적의 10%는 친환경, 전기, 소형차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파악 여부 질의
- 주차장 비탈길 문제, 인력낭비 부분을 지적.

(3) 기타

(4) 행정자치위원회 개인 평가

- 김종천: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질의 숫자가 낮은 수준이고 질의가 짧거나 단순한 경우도 있어 아쉬웠다. 본인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 애정을 많이 표하였다.

우승호: 사회적 약자 중 특히 당사자성이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처우에 대해 지적과 질타를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의료관광 산업과 대전시 마스코트, 시설물에 대한 후기 등 검색을 통해 이번 사무감사를 준비한 자세가 보였다.

민태권: 해당 기관의 직원들의 여건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질문이 많았고, 승진이나 성과 문제에서 소수 직원이 차별받는 일이나 적은 인원으로 행정이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질의등을 하였다.

문성원: 많은 질의와 자료로 양적으로 질의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만큼 관심과 준비가 잘 되었다고 보이고 질의를 마칠 때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 격려의 말을 빠지지 않고 한다. 타 시도에 비교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잦다고 느꼈다.

(5)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평가

- 구체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앞으로 노력, 검토, 수렴하겠다 등 여부만 물어보는 질의가 많았다. 대전시의 인력활용과 감사수준에 대한 의욕들이 많이 보였다.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처리하고 있는지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자리를 잠시 비우는 의원도 있었지만 방해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오후 질의의 경우에는 작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매년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으나 큰 틀에서 사무감사를 준비한 자세는 되어 있었다.

타 시도 지자체와의 비교를 많이 들었으며, 대전 자체의 집중하기 보다는 경쟁

으로서의 우위 부분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갔다.

2)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7일(화) 10:00 ~ 18:0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피감기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2) 산업건설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산업건설위원회-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주요 안건

① 오월드 운영

- 마케팅공사와의 협업이 관리주체와 경영주체의 분리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
- 운영 적자폭 매해 증가하고, 여전히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부족함을 질타.

② 공공임대주택 정책

- 청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 경우 교통 등 주변 환경,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
- 타시도와 비교해도 신혼부부 주택 임대여건이 나쁘지 않은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지적.
- 공공주택 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함을 강조.

③ 유성복합터미널

- 민간계약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할 대책 주문.
- 계약관련 내부 전문가 육성을 위한 방안 요구.

④ 탐립전민지구 산업단지 관련

- 주거 용지를 줄이고 산업단지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
- 수익을 낮추고 산업용지 제공 검토 요구.
-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시 기존 부지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택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
- 도시공사 자체 브랜드 활용해 사업 추진할 필요 있음.
민관공동 방식보다 도시공사 브랜드를 활용 주문.

(3) 기타

- 동서균형발전 문제
- 변호인단 운영 문제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역할 문제
- 에너지공사 설립, 에너지분권 시대에 도시공사의 역할
- 갑천호수공원정화시설 관련
- 도안동로 소음저감포장재 시공관련
- 청소차량차고지 / 청소노동자고용 관련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수빈 : 질의 준비가 안 되었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기사를 찾고 질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오광영 : 다소 협소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절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로 세밀한 질의가 진행됐다. 구체적 적용 개선 가능한 내용들이 제안되었다. 본인의 지역구 사안을 이야기 할 때 보다 더 대전시 입장에서 질의 해야 한다. 질의 내용을 명확히 말해야 한다

- 남진근 : 피감기관에 막연한 내용으로 질타에 그치는 질의가 많았다. 현실성 없는 대안을 나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윤종명 : 오월드, 임대주택 관련 대표성을 가진 접근이 있었으나, 문제제기가 단순하고, 단답식 답변 할 수 밖에 없는 원론적인 질의가 많다. 소각장 관련 질의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찾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확인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다. 준비를 안했다.

- 이광복 :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의 면적, 공급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전에 적용 가능한지 판단되지 않은 사례를 늘어놓는 등 현실적 대안 제시 없다. 사례 제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다른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식의 제시는 지양해야 한다.

(5)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평가

문제사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으나, 실질적 개선 유도하는 질의가 아닌 원론적인 내용으로 피감기관 질타하는 형태의 질의가 많다. 질의나 요구가 막연하다. 훈계 또는 어르기식의 질의가 대부분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사업 확인,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청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출 받는 자료들을 미리 확인하고 미비한 점들을 준비하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이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 전체가 준비가 부족했다.

4) 교육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7일(화) 10:05 ~ 12:2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2) 교육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교육위원회_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한빛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 안건**

① 공공도서관의 숫자 및 인력문제

- 인구가 적은 도시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적음
- 공공도서관 인력이 1명인 것에 비해 담당업무가 많아 제대로 업무를 진행중인지 의문
- 인력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기간 지속
- 인력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에게 제공될 서비스 질 하락
- 여성, 유아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계획 추진희망

② 평생학습관 수리 보수 및 대관문제

- 평생학습관의 무대시설의 지나친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 예산도 부족하다 판단
- 공휴일이나 주말에 공연이 많은데 주말 및 법정공휴일인데 대관불가

③ 학교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추가

- 공공도서관에 비해 비대면 운영 계획이 미흡
- 도서 소독기가 부족하여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 부족
- 코로나로 인해 독서습관이 부족한 상태에 대한 대책 마련

④ 대전한빛교육박물관 활용 및 대안

- 지나친 노후와 소방시설 부족으로 인해 박물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현실
- 부지이전과 예산 문제로 인한 보수가 시급
-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3) 기타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조성철 : 현 문제에 대한 지적과 질의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답변자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질의에 중심을 둔 경향이 보인다. 질의를 하면서 방안

도 제시한 것은 좋지만 방안이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다.

- 우애자 : 피감기관에 대한 예의를 중시한 것 같다. 모든 질의 시작 전에 잘한 부분은 항상 언급한 뒤 질의를 하는 모습은 칭찬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잘 해온 것 같다.

- 김인식 : 사전 준비가 없다. 질의 문맥 역시 맞지 않으며 질문에 퀄리티도 상당히 떨어졌다. 답변하는 중간에서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이어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정기현 : 날카로운 질의가 인상 깊었다. 질문의 요점을 잘 이야기했다. 하지만 자신의 질의에 중점을 둔거 같아 답변하는 와중 자신의 말을 일어나가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방안을 제시할 때도 시민입장에서 의견을 말했다.

(5) 교육위원회 전체 평가

- 대체적으로 현재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질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책 대출을 택배망을 통해서 일자리 구축을 동시하겠다는 방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특정 의원은 조사와 현 문제와는 떨어진 문제를 질의하는 모습은 좋지 않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확실해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의원 중 몇은 현장방문으로 통해 문제를 확실히 직시하고 질의하는 모습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